

삼성, 초일류 글로벌기업 도약 선포

10년 후 매출목표 4000억달러 ... Shell · ExxonMobil과 어깨 나란히

삼성전자가 창립 40주년을 맞아 <비전 2020>을 통해 10년 안에 초일류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발표했다.

삼성전자는 1999년 창립 30주년을 맞았을 때 매출 100조원, IT업계 글로벌 3위 진입이라는 목표를 내놓았고, 10년도 안 된 2008년 매출 118조원을 기록했다.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진정한 글로벌 기업으로 변화함으로써 10년 후인 2020년 매출 4000억달러를 달성하며 글로벌 10대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2009년 미국 Fortune지가 선정한 500대 기업에서 삼성전자는 매출액 1100억달러로 40위에 올랐다.

1위는 Royal Dutch Shell로 매출규모가 4583억달러에 달했고, ExxonMobil은 4428억달러로 2위를 차지했다.

10년 후 삼성전자의 <비전 2020>이 실현되면 HP나 GE를 넘어서 글로벌 10위에 올라 있는 Royal Dutch Shell, ExxonMobil, 월마트(Wall Mart) 등 초대형 글로벌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다.

2009년 글로벌 브랜드 컨설팅 그룹 인터브랜드가 발표한 세계 100대 브랜드에서 19위에 오른 삼성전자는 2020년 브랜드 가치 5위 진입과 더불어 존경받는 기업 10위(올해 50위) 진입도 목표로 하고 있다.

외형에서는 세계적인 에너지, 유통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기업가치와 문화 측면에서는 애플(Apple)이나 구글(Google) 등 IT기업과 견줄 수 있는 수준으로 성장하겠다는 밑그림이다.

삼성전자는 글로벌 10위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사업구조의 대대적인 재편에 나선다.

정보통신, AV(오디오·비디오) 중심의 세트·부품 사업구조를 소프트웨어와 솔루션 위주로 바꾸고 의료·바이오, 환경·에너지, 편의·안락 등 삶의 질 향상(Life Care)과 관련된 부분을 새로운 사업영역으로 추가해 21세기형 사업구조로 전환하겠다는 전략이다.

우선 메모리와 휴대폰 등 경쟁력 우위에 있는 사업에서는 후발기업과의 격차를 벌리고 생활가전·컴퓨터·프린터 등 6개 사업을 적극 육성해 현재 20% 수준인 매출 비중을 2020년에는 30%대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자산업과 다른 산업의 융합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5-10년 후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바이오칩, 의료기기, 헬스, 태양전지 등 삶의 질과 관련된 신규사업이 핵심 대상이다.

제품기획과 개발, 제조, 판매 전 과정을 고객 가치 창출의 관점에서 다시 뜯어고치는 전사 마케팅 체제도 강화한다.

아울러 외부 기관과의 연구개발(R&D) 협력을 긴밀히 하고, 다른 기업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열린 혁신 체제를 정착시킬 예정이다.

또 창조적인 조직문화 구축과 인재 확보를 위해 미래지향적인 성과보상 시스템과 인사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현재 45% 수준인 해외인력 비중을 2020년에 65%까지 높이고 한국에서 근무하는 글로벌 직원은 현재 850명에서 2000명까지 늘릴 계획”이라며 “대졸 여성 인력도 9000명에서 1만5000명 규모로 키우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10/30>